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 마랑항 대결 기대감 ‘술술’

내년 4월부터 돌입...어종 다양성 확대·시상 규모 관심
5천명 이상 방문 예상...직·간접적 경제효과 50억 기대

올해 대규모 낚시대회로 전국을 뜨겁게 했던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가 내년 4월부터 마랑항에서 다시 한번 많은 낚시객을 불러올 예정이다.

26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SDN㈜ 광주사업소에서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 일정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피싱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장인 최기혁 SDN㈜ 의장과 전 재영 강진군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해 조직위원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대회 성과 분석과 2025 대회 운영 방향, 상금 규모, 대상 어종을 확정했다.

2025년 대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어종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 감성돔, 문어, 대방어에 국한됐던 어종을 감성돔, 문어, 쭈꾸미, 붕바리, 대방어 등 총 5개 분야로 늘렸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방식을 기존의 토너먼트 방식에서 일반 대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어와 쭈꾸미는 단일 대회로 나머지 대회는 이를 동안 진행, 조과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는 4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붕바리 선상낚시대회, 9월 문어 선상낚시대회와 쭈꾸미 선상낚시대회, 10월 감성돔 선상낚시대회 시종, 11월 대



강진군이 최근 SDN㈜ 광주사업소에서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조직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방어 선상낚시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장 눈에여 볼 점은 시상금이다. 대회 시상금 규모는 총 2억원으로 진행된다. 감성돔과 대방어 우승자에게는 각 1

천500만원, 붕바리 1천만원, 쭈꾸미와 문어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하위 순위까지 시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특별상과 행운 상품 등도 협찬 및 후

원을 통해 마련해 순위권 밖 참가자들에게도 뜻깊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 전후로 강진군 낚시객은 15배 가량 늘었으며 12

월 현재까지 약 1만3천명 이상의 낚시객이 방문했다.

지난 6월 대회부터 11월 대회까지 참가자·가족·지인을 포함해 약 2천500명 이상 마랑면을 방문했으며 강진군 전체에 2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5년에는 다양한 어종과 2천100명 이상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동행인을 포함하면 약 5천명 이상이 강진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피싱마스터스 대회가 단순 행사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도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등 강진 주요 정책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나주시가 2024년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해 6월 아람에미리트 1004 GOURMET에서 나주시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갖고 현지인들에게 나주배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 평가 ‘대상’ 영예

미국·호주 등 7개국 현지업체와 562억 수출 협약

나주배·쌀 등 농특산물 수출 확대...농가 소득 견인

나주시가 전남 농수산물 수출 1위를 달성하며 1천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4년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나주배, 쌀, 배춧, 김, 버섯 등 품목별 수출 지원사업 추진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팅 분야 등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미국, 호주,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현지 유통업체 11곳과 3천870만 달러(한화 502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현지 홍보·판

촉에도 주력해온 결과 나주산 농수산물 품목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천억원에 돌파하며 탁월한 실적을 기록했다.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 대전환 기치로 민선 8기 출범 후 세계적인 명품 과일 명성 회복에 나선 나주배는 올해 미국과 대만을 비롯해 15개국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했다.

유럽·동남아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전문단지 육성과 나주배 브랜드 포장재 및 수출용 기자재 지원, 영어·베트남어·아랍어 등 8개국 언어로 제작한 팸

플릿, 영어권 홍보영상, 현지 판촉 활동 등 명품 과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정책이 주효했다.

나주쌀 역시 뉴질랜드, 호주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며 100% 수출, 새로운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인과 수출업체의 노고 덕분에”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전문단지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 서남해안 5개 시·군 섬 발전·지역 연대 강화

완도서 W.I.N 포럼 개최...문화예술로 섬 발전 방향 논의

완도군과 전남 서남해안 5개 시·군이 문화예술로 섬 발전과 지역 연대를 강화한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과 목포시,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등 전남 서남해안 섬 벨트 5개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한 W.I.N(World Island Net) 포럼이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W.I.N 포럼은 ‘2030 W.I.N Project(원 프로젝트)’의 유지 필요성 및 전략, 섬

주민 기본권 보장과 생태·기후 문제, 소멸 위기 대응,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2020년 첫 회 이후 다섯 번째다.

‘원 프로젝트’는 서남해안의 많은 섬을 보유한 5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전국·세계로 섬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2030년까지 축제, 포럼, 협치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포럼은 ‘예술로 섬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문화예술을 통한 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5개 시·군



서남해안 5개 시·군이 지난 20일 섬 보유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한 W.I.N 포럼을 성료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완도군 제공〉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섬 관련 전문가, 박지원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온라인(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은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을 지닌 보고로 서남해안 관

광벨트를 완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콘텐트와 전략이 중요하다”며 “내년 8월 완도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 행사와 W.I.N 프로젝트 유지 등이 지역 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군, 청년·일반후계농 모집

내년 2월5일까지...1.5%금리·정책자금 지원

영암군은 26일 “내년 2월5일까지 지역 미래 농업 주축으로 부상할 청년후계농, 일반후계농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농업인 등을 양성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

하고,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청년후계농은 18-39세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후계농은 18-49세의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10년 미만의 농업인이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에 선정되면 1.5%금리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농지 구입, 축사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특히 청년후계농은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책지원금도

최대 3년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후계농은 3월, 일반후계농은 4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일반후계농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팀(061-470-2371)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군은 올해 장영형 청년후계농 71명, 일반후계농 12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임산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육아 친화 조직 분위기 조성

신안군은 26일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40주의 임신기간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모성보호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 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8일)를 연계해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져, 임신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휴가를 3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신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광군, 道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2년 연속 수상...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 측량 높은 평가

영광군은 26일 “지난 24일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4개 분야에 대한 추진 실적, 제도개선 의견 제출 등 점수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영광군은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일찍이 조사부터 측량까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으로 최적의 측량방법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우위의 실적을 보여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 플랫폼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지적측량 분야 우수상, 전남도 연구과제 발표 2개 분야(지적·공간정보) 대상 수상과 형질



영광군 2년 연속 대상 수상

/영광=김동규 기자

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일제정비사업 등 실용적인 특수 시책을 추진한 결과가 이번 대상 수상에 밑거름이 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 시책 발굴과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위주의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YMCA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성료

통일 공감대·평화통일 교육 실천

목포YMCA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2회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대상 찾아가는 통일교육 ‘옴통 통일 통통통’, 청소년 통일교육 ‘How about 통일’ 등을 통해 전남도민과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전남도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평화통일 의지 확산을 목표로, 전남도가 통일의 시작점인 해안반도 평화



목포YMCA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2회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통일 골든벨에 참가한 청소년은 “통일 골든벨에 참여해 통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북한의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